민족문화연구 제88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88호에는 특집 3편을 포함하여 총 13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분야별로는 문학 6편, 어학 1편, 역사학 2편, 철학 3편, 종교학 1편, 해제 1편으로 나눌 수 있고, 시대별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문들이 수록되었다. 특히 『민족문화연구』 제85호에 실렸던 '한국 문화의 정체성 연구'에 이어 연속 기획 특집 '한국 문화의 정체성 연구(2)'가 최종석의 「조선 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神事」, 정혜린의 「구수한 큰 맛: 번역된 자연미」, 박종천의 「풍류(風流)로 보는 한국종교의 에토스」 등 3편의 논문으로 실렸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집의 말에서 별도로 소개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중국의 장석(張碩)은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ㅸ'의 음운론적 지위와 본질을 새롭게 규명하였다. 먼저 한창 논의가 진행중인 'ㅸ'의 음운론적 지위에 대해서 음변화, 최소대립쌍, 분포, 그리고 ㅿ, ㅇ과의 비교를 통해 유성 양순 마찰음 음소인 /β/로 해석하는 일반적 설명을 넘어서서 'ㅸ'가 음소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ㅸ'의 소리 인식, 制字 원인, 그리고 'ㅸ'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원인을 논의하여 'ㅸ'의 본질을 설명했다. 특히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외국어에 능통하고 SLM 이론에 다라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음성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소리 인식의 근거로 삼고, 훈민정음 문자의 체계성과 외국어의 한글 표기와 연관된 制字 원인을 지적하는 한편, 소리보다 형태를 중시하는 세종의 표기 의식과 집현전 학자들의 정밀한 표기 의식이 'ㅸ'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도록 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논증과 결론은 'ㅸ'에 대한 음운론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내현의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 16세기 유연 사건」은 그동안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유연전」을 문집, 일기, 분재기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학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의 관계를 검토한 것은 물론, 상속 갈등과 관련 인물들 사이의 연관 관계, 재판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16세기 상속과 재판을 다루는 사회사 혹은 정치사적 관점에서 음미한 연구다. 특

히 자녀균분상속에 가계 계승자의 몫이 점차 늘어가는 점진적 변화가 나타났던 16세기 사회상과 연계하여 유연 사건을 설명하면서 두 차례 이루어진 재판의 판결 내용이 완전하게 바뀐 것이 16세기 정치세력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해명하였다. 이 논문은 종법이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16세기에 장남 사망시 장남의 부인인 총부와 차남 사이에서 가계 계승과 상속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과 더불어 사림의 전면적 등장이라는 권력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문학적 형상화와 연관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사회상을 읽는 역사학적 독법의 좋은 실례를 선보인다.

강혜진은 〈구운몽(九雲夢)〉에 나타난 미적(美的) 표현의 특징과 기능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사대부 문인의 의식 세계와 고전소설이 드러내는 한국적 아름다움을 논의했다. 필자는 주로 맑음과 관련된 투명함의 시각적 이미지와 차가움의 촉각적 이미지가 활용되는 '비움'의 미적 표현과 더불어, 밝음과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와 패옥·풍악의 청각적 이미지, 향의 후각적 이미지, 요리의 미각적 이미지 등이 부각된 '채움'의 미적 표현 등 두 가지 미적 표현의 양상을 규명하는 한편, 비움과 채움의 미적 표현 양상이 각각 성진의 세계와 소유의 세계의 성격을 표상했으며, 그것들이 각각 조화롭고 고상한 삶의 성취와 현세에 얽매인 삶의 초탈이라는 정신적 가치들에 조응하는데, 〈구운몽〉에서 이 두 가지의 표상은 물론 양자를 넘어서는 궁극의 깨달음까지 구현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조희영은 그동안 천문학과 역사학적 접근을 통해서 서양의 천문학을 접목한 독특한 역학적 천문서로 성격이 규명되었던 金錫文의 『易學二十四圖解(總解)』에 대한 연구를 소강절의 상수역학(象數易學)의 관점에서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소강절의 원회운세를 우주생성론으로 논의하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석문이 원회운세를 포함한 강절역 전체를 우주론 전반에 적용했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그동안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김석문의 易象圖 26개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김석문이 조선에서 최초로 地轉說을 주장하고 9重天과 天文象數 등을 제시한 새로운 천문이론과 태극도설의 재해석, 장재 태허론과 기론의 흡수, 강절 수학의 대용량화, 강절 태극으로

'天行健'의 창조적 해석, 새로운 시초점 개발, 9수를 통한 洛書의 활용을 선보이는 새로운 易說을 제시함으로써 공자의 유학을 천문학과 수학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선의 역학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김대중은 복리사상(福利思想)을 통해 19세기 새로운 사상적 가능성을 선보인 심대윤(沈大允, 1806-1872)의 사상을 신체유물론적 시각에서 설명한 참신한 연구다.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자 '선'(善)으로 긍정하면서 이익의 공유와 독점을 각각 '공'(公)과 '사'(私)로 구분하여 '공리'(公利)를 중시한 심대윤의 복리사상에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근대적 관점에서 '이익'을 강조한 반면, 이 연구는 이익 추구보다 선차적 중요성을 갖는 '몸'과 '노동'의 측면, 즉 인간의 동물성과 신체 활동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심대윤의 유물론적 감수성과 생활 감각에 토대를 둔 노동 체험을 분석하고 육체 긍정과 노동 옹호 및 서민적 지향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김용태는 신미양요 당시 서해안 방어를 담당했던 수원유수이자 19세기 중반 서울 북촌시단을 이끌었던 역사적 위상과 문학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韋史 申錫禧의 활동 양상과 사상적 지향점을 최초로 밝혔다. 이 연구는 관념적 위정척사론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현실적 주전론의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최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본 京都大學 '가와이 문고' 소장 『韋史文稿』를 기반으로 삼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강혜정은 그동안 자료 미발굴로 인해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정재의 역사를 보완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였다. 1915년 일제의 식민통치 5주년 기념으로 『신문계(新文界)』에 수록된 광교기생조합의 공진회 정재 창사를 통해 고려부터 조선조 내내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歌舞樂이 결합된 종합예술인 정재가 경술국치 이후 더 이상 궁에서 연행될 수 없는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정재를 담당했던 기생들이 기생조합을 결성하고 극장이나 요리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하면서 대중예술로 변화하는 양상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전통 예술이 대중문화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근대적 변화 양상 해명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석은 극예술연구회 제10회 정기공연 체제와 그 의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극예술연구회의 공연 체제나 작품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기존 연구의 한계가 정통 신극 단체인 극예술연구회가 신극 공연을 위한 일관된 공연 방식을 고수했다는 기존 연구의 막연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연구회가 실제 공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다채로운 시도를 모두 경험한 극단이었으며, 극단으로 격상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단체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해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신선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고현혜는 가족 서사 분석을 통해 이상의 문학적 과업이 가족 파괴의 구축과 관련된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상의 『12월 12일』 및 「종생기」에 대하여 셰익스피어의 『햄릿』,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상호텍스트적으로 읽는 방법을 통해서 가족의 비극적 운명 파괴와 새로운 운명 구축의 경향성을 규명하는 한편, 가족 서사에 나타난 가족의 알레고리적 성격 및 가족 서사 전체를 통어하는 정조인 멜랑콜리를 밝혔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이상의 가족 구원의 열망이 가족 파괴와 구축의 욕망을 보여주는 모순적인 양가감정의 지닌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임을 논증하였다.

오형엽은 조지훈 시의 미학적 원천을 청각성의 미학과 존재성의 미학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소리의 배음(背音)'과 '적막의 여운'을 청각성의 미학으로 추출하고, '밤의 아우라'와 '승화의 거점'을 존재성의 미학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표면적 미학인 풍경이나 율동에 대한 시각적 묘사를 넘어서서 그 배경을 드러내는 청각성의 미학과 존재성의 마학까지 아울러 형상화하는 조지훈 시의 종합 미학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성취를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번 호의 해외한국학자료 소개에서는 김효경이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된 『관감목록(關甘目錄)』을 소개하였다. 『관감목록』은 1890년부터 1891년까지 고종대 함경도 감영에서 발송한 관, 감결, 전령, 첩, 완문 등

의 문서를 정리한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서 지방 감영의 관문서 정리방식을 확인하거나 각 관문서들의 행이체계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동일한 성격의 사안을 놓고 때로는 관을 발급하기도 하고 감결을 발급하기도 하며, 때로는 감결을 발급하기도 하고 전령을 발급하기도 하는 등 관문서끼리의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양상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관문서의 성격과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민족문화연구』 제88호에는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학 각 분야의 중진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의 논문들이 비교적 고르게 게재되었으며,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기획 특집이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의 자료를 통한 연구 소재와 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진 결실이 게재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공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새로운 관점, 문제의식, 자료를 소개하는, 참신하고 심도있는 좋은 연구 논문들을 투고하기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